

벤처자금생태계와 선순환 과제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벤처자금생태계란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캐피탈(VC)의 자금모집과 투자, 투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뤄지는 순환체계를 일컫는다. 벤처자금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시장과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VC에 대한 외부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물론이고 VC의 혁신벤처기업 발굴과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능력, 그리고 투자 이후 경영자문 능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모험자본시장이 발전해야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하에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신기술금융회사로 양분되어 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창업투자회사가 주도를 했다. 이후 신기술금융회사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급기야 2021년엔 신기술금융회사가 앞서고 이후부터는

서로가 경쟁하듯 앞서기 뒤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의 투자 규모는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이다. 벤처투자자금을 보면, 2010년 중반까지만 연 2.5조~3조원대에서 2021년 17조원으로 정점을 이뤘고 2023년에도 11.9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벤처자금생태계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지난 20년간 연구현장에서 몸담은 필자로서는 우리 벤처캐피탈업계의 질적 성장이 절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벤처캐피탈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지만, 벤처자금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벤처업계의 역량 제고와 함께 모험자본시장의 육성이 다음과 같이 더욱 절실하다.

첫째, 우리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발굴 선별능력과 함께 경영자문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2016년부터 2023년 기간 대략 75조원 정도 벤처투자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되었는데, 이들 중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은 얼마나 될까? 투자기업 중 국내 자본시장 외 나스닥(Nasdaq) 같은 해외시장에 IPO를 한 기업은 몇 개가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적되는 하나가 VC가 그만큼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가 VC의 투자기업 경영참여는

물론 글로벌화에 대한 컨설팅의 부진이다. 정부는 자금공급과 VC업체수 늘리기 등의 외형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VC 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예를 들어 VC 경쟁화 및 전문화, 해외 LP유치, VC 투자 및 운용자료 공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되는 자본시장으로 육성 발전이 시급하다. 우리 M&A 수준은 VC의 회수비중에서 수치로 제시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M&A 부진은 VC의 선별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시장의 투자 회피를 의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VC의 역량 제고와 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40%로 묶여있는 CVC의 외부출자 비중 확대, 연기금의 벤처투자확대, 세계지원 M&A 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의 설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벤처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은 우리 VC가 한 단계 더 발전함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혁신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이를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의 독서망양(讀書亡羊)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서민의 꿈에 '금투세금'을 매길 수 없다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일본에서는 로또에 당첨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지.”

영화 마스터에 나오는 이병헌의 대사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일부 복권의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도 복권 판매가격 중 40%를 이미 세금으로 받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문장이 유명하게 퍼진 이유는 그만큼 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동학개미운동' 광풍이 불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값이 하늘을 뚫었고,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져 가는 이 땅에서 주식투자는 서민들의 꿈이나 마찬가지다. 개미(소액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지만 잔잔한 성공 투자, 그저 자본 증식을 위한 나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

할 씨는 부족하고, 예금 이자로 축적해 나가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다. 10년 뒤 현금흐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불안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갔던 경제포럼에서 한 강연자는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완전한 불로소득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복권처럼 한 번의 성공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경제 흐름과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논리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1400만 개미들이 성공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6일 (금 8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48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주어진다. **60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72년생** 생 배우자와 사람과 만남을 주의. **84년생** 서로 통하는 파트너를 만난다.
- 3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49년생** 불평이 많다 보니 화병이 생긴다. **61년생** 좋은 꼴을 얻으려면 먼저 발을 키워라. **73년생** 너무 기뻐도 병이 될 수 있으니 겸손하자. **85년생** 문서매매는 지금보다 다음 달이 수월하다.
- 38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50년생** 이상적인 합은 있을 수가 어렵다. **62년생** 조직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74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86년생** 나의 안식을 종교에서 과연 구할 수가 있을까.
- 39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자. **5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곧 있겠다. **63년생** 싫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해 생각. **7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87년생** 돌아서기보다는 부디 쳐보는데.
- 40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즐거운 하루. **52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6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76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을 남기지 말고 실행. **88년생** 사는 것이 구만리 같아 힘들다.
- 41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53년생** 마음이 들뜨면 취침 전에 잠시 명상이라도 해보자. **65년생** 질투 슬픔 시샘도 마음의 병이다. **77년생** 오늘 미팅에는 의상을 단순하게 입고 나가면 길하다. **89년생** 오늘만이 날이 아니다.
- 42년생** 오월동주(吳越同舟)이니 동업자와 소통해야. **5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6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 **78년생** 자신의 결함을 살펴보는 것도 자세. **90년생** 만남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데.
- 4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라. **55년생** 가족의 평화나나의 성공을 이끄는 지팡이. **67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79년생** 자신을 지키는 힘은 격한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91년생** 행복은 나눔에서도 시작.
- 4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5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해야. **6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80년생** 살아가자면 좋은 삶은 경쟁은 필수이다. **92년생** 나는 잘났고 너는 문제가 많다는 현실일까.
- 45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분얼이랄 듯. **57년생** 진실을 알아도 침묵할 줄도 알아야. **69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81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93년생** 타인을 욕하지 말라 내게 온다.
- 46년생** 남의 말은 사을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70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금물. **82년생** 학구열이 식지 않으므로 명성을 거머쥘다. **94년생** 10년 묵은 속병이 풀려진다.
- 47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이 귀인이다. **59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야 해결. **71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을 행하라. **83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 **95년생** 예의가 없으면 조롱당하기도 하니.



김상회의四季 힐러리의 유리천장

미국대통령 선거 관련 화제를 얘기하다 보니 미국 역사상 전례 없던 여주대통령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전술한 바처럼 필자의 예측대로라면 김푸른 얼굴의 소유자는 현재 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에 없으니 말이다. 2016년 대선에서는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탄생을 볼 뻔했으나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유리천장을 깨기에는 아직 부족했다"며 아쉬워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깰 수 있다며 대선 승리를 응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드물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례는 있었지만 민주적 총의에 의해서 개인적 역량을 인정받아 올라온 것이 아닌 이미 절대 권력의 이너 써클 안에 있던 여성들이었다. 산업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성들은 혹독한 남성적 사고와 시대상에서 철저히 남성의 소유물로서 조종받거나 지배당해왔다.

동양에서도 특히 정관의 치를 펼친 당태종의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은 이어서 황제가 된 고종의 아내 측천무후였다. 역사적으로 악녀로 그려져 있는 것은 감히 여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권력층 남성들의 용렬한 자존심이었다고 보고 싶다. 후대에서 측천무후의 재세 기간도 지워버릴 만큼 말이다. 명리학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자의 사주에 강한 신살은 매우 꺼렸는데 사주가 클수록 강한 신살의 작용에 힘을 더욱 받기 때문이다. 여자가 큰 사주를 지니고 있다면 분명 남편이나 자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꺼려졌던 신살을 가진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여러 분야에서 깨져가고 있지 않은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열매마을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3X3 스토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